

국내거주 외국인의 재난 시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Foreigners in the Country for the Occurrence of Disasters

Wonhoi Koo^{a,1}, Jinchan Park^{b,2}, Minho Baek^{c,*}

a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 Mojong 119 safety center Asan fire station, Republic of Korea

c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ers living in the country was examined and the problems and demands regarding the occurrence of disasters from various nationalities who are actually living in the country were investigated. The result show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secure various channels for them to receive information regarding the disaster and safety service and provide information they want continuously with great interest. Also, it would be necessary to prepare institutional measures to solve the language barrier and difficulties in the way of reporting at the national level.

KEYWORDS

Korea-Resident
Foreigners
Disaster
Awareness
Survey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대상으로 재난의 경험 여부, 재난발생 시 위험성 및 문제점,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도 등에 대하여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난발생 시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 신고의 방법을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외국어 가능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재난안전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언어적인 문제와 신고방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내거주 외국인
재난 시 서비스
인식조사

© 2015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33-540-3134, Email. bmh@kangwon.ac.kr

1 Tel. 82-10-9771-3721. Email. kwh@kangwon.ac.kr

2 Tel. 82-10-7279-0582. Email. neilbae74@gmail.com

ARTICLE HISTORY

Received May. 25, 2015

Revised May. 30, 2015

Accepted Jun. 27, 2015

1. 서론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3.1.1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144만 5,631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고 외국인 입국자는 2013년 1년간 1,220만 473명으로 전년도 대비 9.6%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증가와 국제화의 흐름에 맞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재난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세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재난대응서비스가 무엇이고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 신고방법, 언어문제와 의사소통 등 국내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서비스의 인식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거주현황과 국내거주 외국인의 재난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의 재난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의 문제점, 재난안전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2.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난서비스 현황

2.1 국내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거주 외국인은 Fig.1와 같이 8년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536천명에서 2013년 1,446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자국 언어만 20여개나 되고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Fig. 2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 주민자녀,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유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혼인귀화자, 기업 투자자, 기타 사유 귀화자 등이 있었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은 Fig. 3을 살펴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54%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이 1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뒤로는 미국(5%), 필리핀(4%), 일본(3%)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역별 현황은 Fig4와 같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등의 수도권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도가 1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뒤로 살펴보면 충청도(8%), 전라도(5%), 부산(4%) 등의 순서로 분포해있다. 특히 기업체와 대학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절반 이상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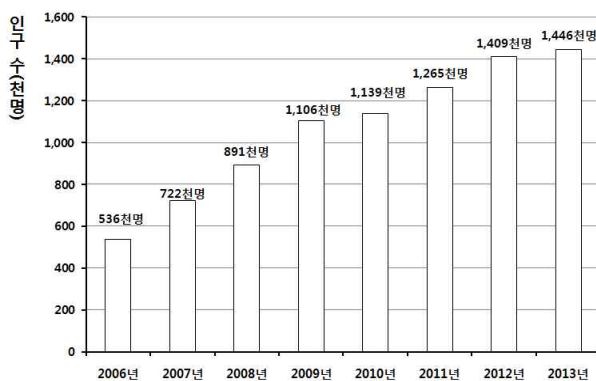


Fig. 1 Foreign Resident Status by Year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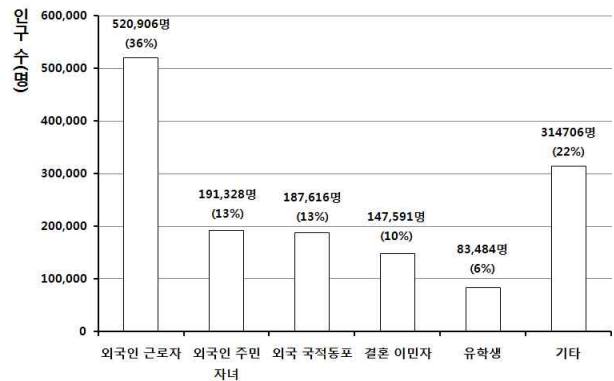


Fig. 2 Foreign Resident Status by Type in Korea

출처 : 안전행정부 공동체지원과, 2013 외국인 주민현황, 2013.07.03

3) 안전행정부 공동체지원과, 2013 외국인 주민현황, 2013.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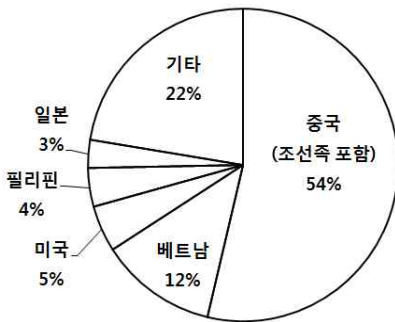


Fig. 3 Foreign Resident Status by Nationality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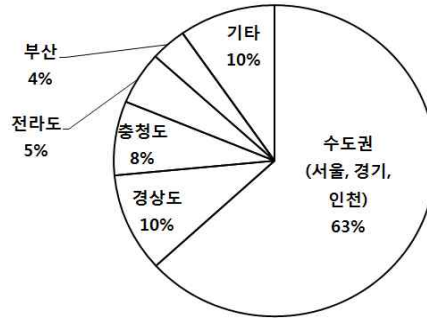


Fig. 4 Foreign Resident Status Distribution Status in Korea

출처 : 안전행정부 공동체지원과, 2013 외국인 주민현황, 2013.07.03

2.2 국내거주 외국인의 재난서비스 현황

국민안전처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웹사이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직의 역사, 비전 및 목표, 조직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안전처 산하 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재난안전 애플리케이션인 Safety First를 개발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기초정보와 재난에 대처하는 행동요령을 6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번체, 중국어간체, 일본어, 베트남어)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난 외에도 각종 사고를 포함한 생활안전사고와 대피소 유형, 외국어 지원 긴급 연락처 등을 소개하고 있다.

경기재난본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하여 안전교육 동영상상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안전사고 대처요령, 응급처치, 안전산행정보, 생화학 테러 시 대처요령, 재난안전 동영상, 피해신고요령 등을 홈페이지에 총 7개 언어로 소개하고 있다.⁴⁾ 또한 충남소방재난본부에서는 외국인 신고자에게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에 대해 통역서비스가 지원된다. 이는 비상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재난상황에서 119로 신고를 할 경우 지령실로 연결되어 신고자, 신고담당자, 외국어 가능한 담당자 3명이 멀티 통화하여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이 모국어로 신고나 도움요청을 실시할 수 있다.

Fig. 5와 6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통계자료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재난서비스 이용현황을 언어별 및 신고유형으로 살펴보았으며 언어별 이용현황은 중국어가 전체 35%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영어, 일본어순이었으며 기타 언어로는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아시아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신고 유형별 현황은 구급으로 인한 신고가 전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구조, 화재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기타사항으로 일상안전점검, 생활안전사고 요청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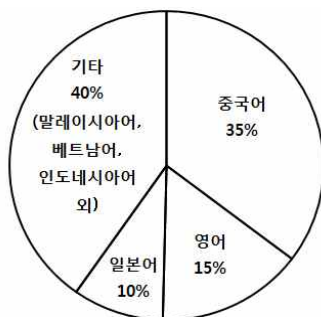


Fig. 5 Foreign Resident Status by Language Type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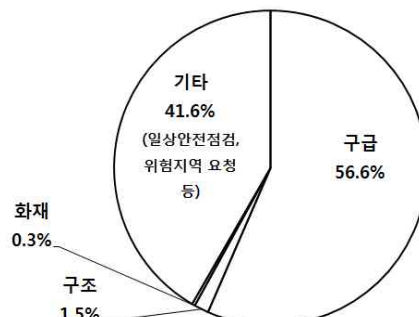


Fig. 6 Foreign Resident Status by Reporting Type in Korea

4) http://fire.gyeonggi.kr/fire_dev/

3. 국내 외국인의 재난안전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3.1 조사 개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150명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경험, 신고여부,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국적을 지닌 국내거주 외국인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국내의 재난 상황(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재난, 재난상황 경험 여부, 재난 상황 시 신고 경험 여부, 재난 상황 시 도움요청 및 신고상의 문제점, 재난안전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경로, 국내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가장 인상이 깊었던 사항 등이 있으며 조사개요의 세부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Outline of Investigating

구분	내용	
조사목적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발생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사용	
조사일시	2013년 8월 ~ 10월 (약 3개월)	
조사대상	성별	총 150명(남 104명, 여 46명)
	연령	10대(2명), 20대(83명), 30대(50명), 40대(12명), 50세 이상(3명)
	출신국가	말레이시아(22명), 네팔(17명), 베트남(15명), 스리랑카(13명), 파키스탄(13명), 중국(11명), 미국(10명), 필리핀(7명), 인도네시아(6명), 아프가니스탄(6명), 기타 국적(30명)
	학력수준	중학교 졸업(5명), 고등학교 졸업(49명), 대학교 졸업(69명) 대학원 졸업 이상(27명)
	한국어 구사능력	상(9명), 중(61명), 하(80)
조사방법	외국인복지원센터 방문 설문조사 (천안)	
조사내용	재난 상황 피해 및 상황 경험	- 재난 상황 경험 여부 - 재난 상황 시 신고 경험 여부
	우리나라 재난 안전도 및 서비스 만족도	- 재난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전도 - 재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재난의 위험성 및 재난 서비스의 문제점	-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재난 - 재난 상황 시 도움요청 및 신고상의 문제점
	재난 서비스의 요구도	- 재난안전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경로 -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요구사항

3.2 조사 결과

먼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항 중 재난 상황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Fig. 7과 같이 전체 150명 중 14명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36명이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재난 상황(직·간접적) 시 신고를 실시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Fig. 8과 같이 전체 150명 중 62명(41%)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8명(59%)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재난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상황에서의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난상황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전도는 Fig. 9와 같이 전체 150명 중 105명(70%)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위험하다는 의견은 4명으로 3%에 불과했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대해 2/3이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서비스의 만족도는 Fig. 10과 같이 전체 150명 중 82명(55%)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63명(42%), 만족도가 나쁘다는 의견이 5명(3%)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재난서비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5) 태국4명, 방글라데시4명, 남아프리카 3명, 러시아 2명, 예멘 2명, 모로코 2명, 일본 2명, 캄보디아 2명, 키르기스스탄 2명, 우즈베키스탄 2명, 몽골 2명, 기타 국적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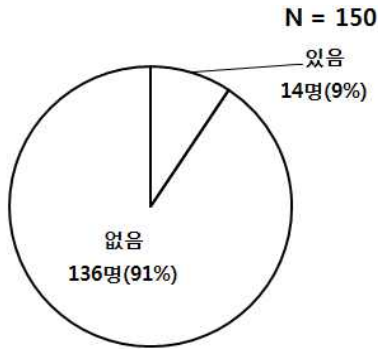


Fig. 7 Experience Status of Disaster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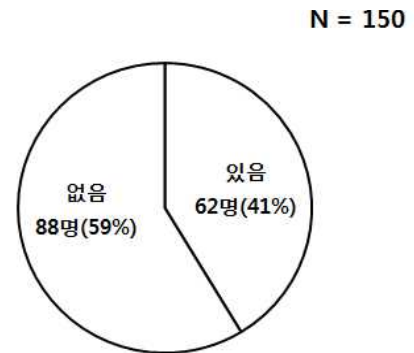


Fig. 8 Status of Experience in Reporting Disaster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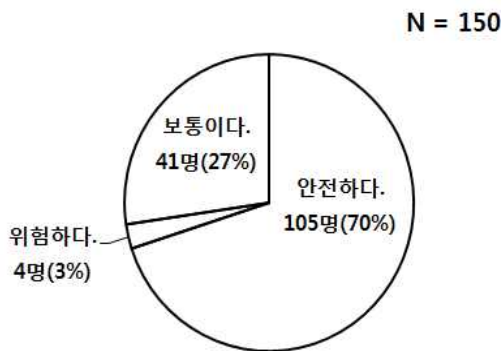


Fig. 9 Safety of Disaster Situation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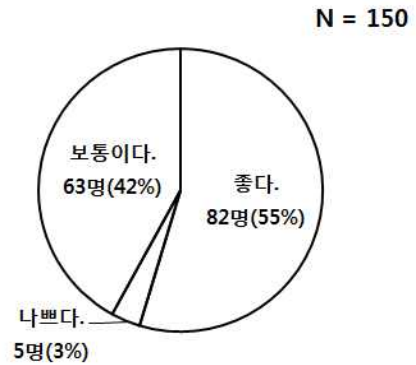


Fig. 10 Satisfaction for Disaster Service

국내의 재난발생 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재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Fig. 11과 같이 자연재난은 태풍이 전체 150명 중 60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중호우가 28명(19%)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뒤로는 폭설, 지진, 폭염, 지진해일, 산사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재난은 Fig. 12와 같이 화재가 전체 150명중 46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33명(22%)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뒤로는 산업 안전사고, 전염병, 생활안전사고, 위험물사고, 전쟁, 테러 순으로 나타났다.

재난 상황 시 도움요청 및 신고상의 문제점은 Fig. 13과 같이 언어상의 문제가 전체 150명 중 95명(63%)으로 1/2 이상을 차지하였고 신고방법을 알지 못한다가 30명(20%)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뒤로는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 부재, 인종차별, 불친절하고 수준이하의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상황 시 도움요청 및 신고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어상의 문제가 전체 62명 중 38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방법을 알지 못한다가 10명(16%)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재난 및 응급상황 시에 혼란스럽거나 당황하여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및 도움 요청 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인다.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는 Fig. 14와 같이 인터넷이 전체 150명중 69명(46%)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얻는다가 24명(16%)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TV, 전광판, 주변에 친구 및 동료, 라디오 등 각종 기존매체에 대한 응답 양상이 나타났다.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Fig. 15와 같이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보가 각각 41명(27%)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 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이 25명(17%)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뒤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간단한 한국어, 공공장소에 비치된 비상장비 사용방법,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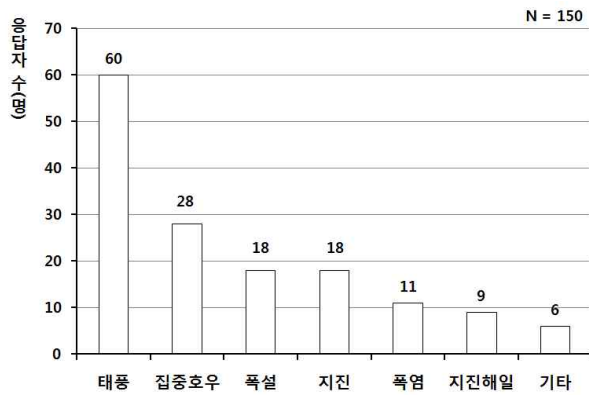


Fig. 11 The Most Dangerous Natural Disaster of a Disaster Occurring in Domes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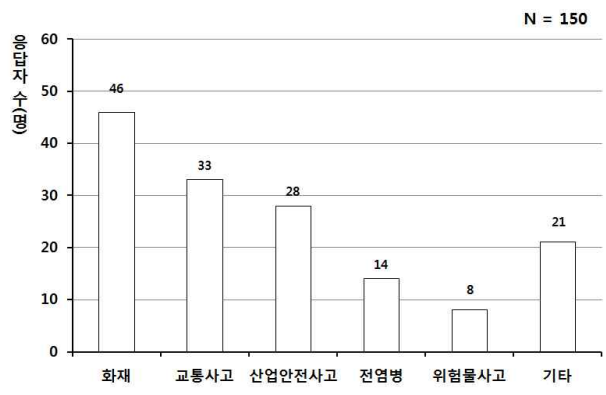


Fig. 12 The Most Dangerous Social Disaster of a Disaster Occurring in Domes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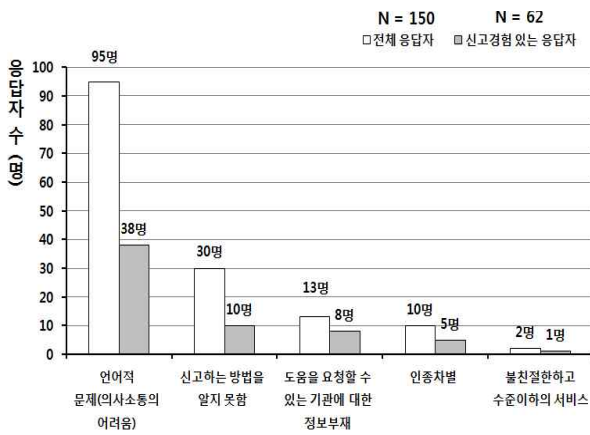


Fig. 13 Help Request and Problems in Reporting upon Disaster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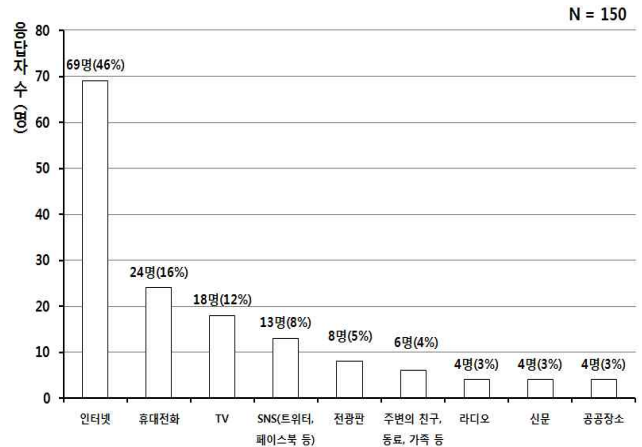


Fig. 14 Channel that the Foreigners Want to Know on Disaster Safety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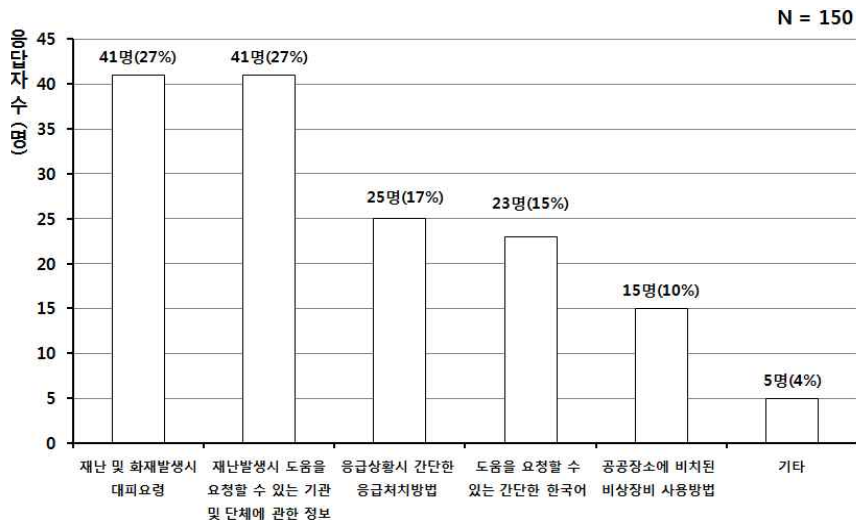


Fig. 15 The Foreigners Want to Know upon Disaster Situation

3.3 조사 결과 시사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경험, 위험도, 문제점, 요구사항 등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거주 외국인이 재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언어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 설문에서 살펴보면 재난 발생 시 도움 요청 및 신고를 할 경우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이 전체 6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국내거주 외국인의 사용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움 요청 및 신고 시 다양한 언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 등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내 발생할 수 있는 주요재난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로 신속하게 도움 요청 및 신고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미흡하다. 설문에서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체 10%미만의 인원이 재난은 경험하였지만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경험은 41%로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접 재난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직접적인 신고 및 도움요청을 비롯한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재난안전에 대한 다양한 경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전 서비스 경로는 각종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웹기반의 접근이 어려운 자들을 위한 차선택의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 구체적인 연구와 이를 통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대상으로 재난발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국어 재난서비스의 제공, 신고접수 시 다양한 언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제2외국어 가능인력의 확충과 다양한 신고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난안전 정보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정보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에 대한 제공이 미흡하고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침, 계획,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의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지원하는 센터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재난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노인, 여성, 어린이 등과 같이 재난약자에 속한다. 특히 외국인은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워 교육 및 훈련에 참가시키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재난대비훈련은 자국민에게는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을 지원하는 센터 등의 기관에 재난 발생에 따른 대피요령, 기관 및 단체 정보, 신고 및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간단한 한국어, 재난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응급처치법 등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정보 콘텐츠의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현재 개발된 다중어앱이 있지만 아직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중어앱 등을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재난상황에 관한 행동요령, 신고방법, 관련 기관 정보, 비상장비 사용법 등을 인터넷, 방송매체 등을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Park J.C(2014), A Survey Research on Disaster and Emergency Services for Korea-Resident Foreigner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2013), 2013 Resident Foreigners Status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2), Annals of disaster
- Ministry of Justice(2014), A Monthly Report Immigration Foreign Policy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2012), Developing disaster preparedness contents mobile application for disaster vulnerable people